

대학종합평가인정제 실시에 따른 대학도서관의 평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valuation of Academic Libraries in the Context of Accrediting Universities in Korea

서 혜 란(Hye-Ran Suh)··

목 차

- | | |
|------------------------|----------------------|
| 1. 서 론 | 3. 1 대학종합평가 기준의 분석 |
| 2. 대학종합평가인정제의 개관 | 3. 2 문제점의 인지 |
| 2.1 실시배경과 목적 | 4. 대학도서관 평가의 새로운 방향 |
| 2.2 평가절차 | 4. 1 대학도서관 평가의 최근 경향 |
| 2.3 평가영역 및 부문별 가중치 | 4. 2 대학도서관 평가에 대한 제언 |
| 3. 현행 대학종합평가인정제와 대학도서관 | 5. 결 론 |

초 록

현행 대학종합평가인정제의 실시배경과 목적, 평가절차, 평가영역 및 부문별 가중치를 개관하였다. 대학교육협의회에서 설정한 대학종합평가 기준 가운데 대학도서관에 관련된 평가항목 및 가중치, 평가지표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외국에서의 대학 도서관 평가의 최근 경향을 살펴보고, 그것에 기초하여 현행 평가기준 중 도서관 평가와 관련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단 평가 항목에 대한 정량적 평가척도 문제는 제외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provides an overview of the accreditation landscape in Korea, and identifies some problems in the current accrediting review program which assesses the library's achievements.

These are as follows: ① The weight given to the library sector is insufficient. ② There are no indicators to appraise the achievement of the informational and educational functions of academic libraries. ③ It is completely devoted to input indicators, but not process or output indicators. ④ It is impossible to evaluate the quality of library services. ⑤ The units of statistics are not standardised.

Some alternative measures and indicators are proposed to evaluate the performances of academic libraries' services. It is suggested that an official draft should be prepared by Korean academic librarians to amend the library sector of current accrediting review program.

* 본 논문은 1995년도 한국문헌정보학회 추계발표회 발표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 부산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

접수일자 : 95. 12. 7

1. 서 론

21세기를 눈앞에 둔 한국의 대학들은 변혁의 물결에 휩싸여 있다. 대학의 대중화 정책에 따라 양적 팽창을 거듭해 온 대학들은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대학수용능력을 밀돌 것으로 전망되는 대학입학적령인구의 감소 추세, 외국에 대한 교육시장 개방 등 외부적 요인과 가중되는 재정적 어려움 등 내부적 요인으로 인해 이제는 대학의 질적 성장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대학간 경쟁을 유도하려는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기 시작한 대학평가인정제는, 그 제도가 가지는 몇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대학도서관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되었다. 대학이 질적인 면에서의 내실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교육과 연구라는 대학 기능을 수행하는 중심기관인 대학도서관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것은 물론이고, 제시된 평가인정척도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도 대학도서관에 많은 투자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4년부터 실시되기 시작한 대학평가인정제는 적어도 대학도서관의 발전이라는 시각에서 볼 때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본 연구의 목적은 그러한 문제점들을 인지하여 분석하고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다만 평가항목에 대한 정량적 평가 척도 문제는 연구범위에서 제외하였다. 대학평가인정제 실시와 관련한 대학도서관 평가 문제는 이미 모든 도서관인들의 관심사가 되어 있어서 제32회 전국도서관대회 중 하나의

주제로 다루어진 바 있다. (김진수)(김정현)(백향기) 차제에 대학도서관 평가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21세기의 새로운 대학도서관 모형을 정립하는데 일정 부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2. 대학종합평가인정제의 개관

2.1 실시배경과 목적

대학평가인정제는 대학의 질적 수준을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사회에 공표함으로써 그에 관한 사회적 인정을 얻게 하는 제도이다.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고등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각각 고유한 형식과 기준에 따라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학평가제도는 지난 50년 동안 몇차례의 변천을 겪었다. (李和國:68-69) 특히 1982년 설립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이라 함)가 회원기관인 전국의 4년제 대학을 평가하기 시작함으로써 대학평가는 관주도에서 벗어나 자율적 평가제로 전환되었다. 대교협은 교양교육, 공학계, 사범계 등의 학문영역평가와 대학의 학사 및 운영 전반을 진단하는 대학 기관평가(1991년부터 종합평가로 명칭 변경)를 2주기(1주기:1982-1986, 2주기:1988-1992)에 걸쳐 실시하였다. 이것은 대학인에 의한 자율적 평가로 평가결과가 정부의 대학에 대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 자료로 활용되지는 않았다.

한편 교육개혁심의회에서는 1987년에 기존

의 대학평가제도를 보다 강화하여 대학평가인정제로 전환할 것을 전의하였다. 이에 따라 먼저 1992년부터 학과평가인정제가 시행되기 시작했고, 대학종합평가인정제는 그 실시 시기에 대한 몇번의 정책변경 끝에 1994년부터 시행하도록 최종 확정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제3주기의 새로운 대학종합평가인정제는 1994년부터 2000년까지 7년간에 걸쳐 수행될 것이며, 이 주기의 평가인정에 통과된 대학이 갖는 인정의 효력은 7년간 유지된다.

대교협이 밝힌 대학종합평가인정제의 목적은 대학교육의 수월성 제고, 대학경영의 효율성 제고, 대학의 책무성 향상, 대학의 자율성 신장, 대학간 협동성·진작 및 대학 재정 지원의 확충을 통해 대학을 발전시키는데 있다.

2.2 평가절차

대학평가인정위원회는 각 대학의 평가신청을 받아 평가시기를 결정한다.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각 대학은 대교협이 설정한 평가 기준에 의거하여 자체평가연구를 수행하고 자체평가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교협에 제출한다. 대학평가기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대교협 회장이 위촉하는 종합평가위원회는 이 보고서에 의한 서면평가와 함께 현지방문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대교협에 제출한다. 대교협은 대학별 평가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평가인정자료를 작성하여 대학평가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평가인정위원회에 제출한다. 대학평가인정위원회는 인정여부를 판정하고 판정 결과를 해당 대학에 통보한다.

통보를 받은 대학은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소정의 자료를 제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대학평가인정위원회는 대학평가사업의 공공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그 운영이나 평가결과 처리에 있어 독립성을 존중받는 기구로서 대교협 회장이 추천하는 1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즉 5명 이내의 산업체와 사회단체 대표, 대교협이사회가 선정한 5명 이내의 대학총장이나 대학보직교수, 2명 이내의 대학평가전문가, 당연직인 교육부차관, 대학교육심의회 위원장, 대학평가기획위원회 위원장 및 대교협 사무총장이며 임기는 2년이다. 대학평가기획위원회는 대교협 회장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평가전문 교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학 총장 중에서 선임한다.

2.3 평가영역 및 부문별 가중치

대학종합평가인정제는 대학을 학부와 대학원으로 나누어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을 취한다. 학부는 교육, 연구, 사회봉사, 교수, 시설 설비, 재정 경영의 6개 평가항목에 걸쳐 22개 평가부문 및 101개 평가항목으로 나누고 대학원의 경우에는 5개 평가부문과 20개 평가항목으로 나누어 각각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각 영역별 평가부문과 가중치는 <표 1>과 같다.

각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는 제시된 주요지표에 따라 정량적 평가 또는 정성적 평가를 실시한다.

〈표 1〉 대학종합평가의 평가영역 및 부문별 가중치

[학 부]

평가영역	평가부문	가중치
1. 교육		(120)
	1. 1 교육목적	14
	1. 2 교육과정	40
	1. 3 수업	32
	1. 4 학생	34
2. 연구		(70)
	2. 1 연구실적	22
	2. 2 연구여건	22
	2. 3 연구지원체제	26
3. 사회봉사		(30)
	3. 1 사회봉사	14
	3. 2 대외협동	16
4. 교수		(80)
	4. 1 교수 구성	32
	4. 2 수업부담 및 복지	12
	4. 3 교수 인사	20
	4. 4 교수 개발	16
5. 시설, 설비		(100)
	5. 1 교육기본시설	24
	5. 2 교육지원시설	32
	5. 3 실험실습 설비	26
	5. 4 후생복지 시설	18
6. 재정, 경영		(100)
	6. 1 재정확보	24
	6. 2 예산편성 및 운영	26
	6. 3 기획 및 평가	14
	6. 4 행정 및 인사	22
	6. 5 대학의 의사결정	14
계		500

[대학원]

평가영역	평가부문	가중치
	7. 1 교육과정	20
	7. 2 수업 및 논문지도	36
	7. 3 교수	22
	7. 4 시설, 설비	12
	7. 5 재정, 경영	10
계		100

3. 현행 대학종합평가인정제와 대학도서관

3.1 대학종합평가 기준의 분석

대교협에서 설정한 대학종합평가 기준 가운데 대학도서관에 관련된 것은 학부의 시설 설비 영역의 교육지원시설 부문 가운데 4개 평가항목, 그리고 재정 경영 영역의 예산편성 및 운영 부문 중 1개 항목 뿐이며 대학원과 관련해서는 평가항목이 전혀 없다. 즉 총 121개 평가항목 중 5개 항목에 불과한 것이다. 이것을 각 항목에 부여된 가중치로 계산하면 총 가중치 600 가운데 최소 21.3에서 최대 24로 약 4% 정도를 차지한다. 여기서 최소치와 최대치가 달라지는 것은 가중치 4가 부여된 '정보

처리 체제의 구축 및 운영'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를 얼마나 넓게 대학도서관 평가에 적용시키는가에 따라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대학도서관에 관련된 평가항목 및 가중치 그리고 평가의 주요지표는 <표 2>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작성하는 대학도서관 관련 평가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표 3>의 대학도서관 현황, 도서관 전산화 실태 그리고 <표 4>의 최근 3년간 재학생 1인당 도서구입비 현황으로 구성되게 된다.

<표 3>에서 학생(학과)근거지표는 도서관수, 직원수, 좌석수의 경우 각각 도서관, 직원, 좌석당 학생수를 구하며, 장서수의 경우 학생당 장서수를, 정기간행물의 경우 학과당 정기간행물 구독종수를 산출하여 기입하며 <표 3>과

<표 2> 대학도서관 관련 평가항목 및 가중치

* () : 가중치

평가영역	평가부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5. 시설 설비영역 (100)	5.2 교육지원시설 (32)	1. 도서 확보의 적절성(8)	재학생(학부+대학원) 1인당 도서수 확보된 도서의 질
		2. 열람 좌석의 확보(4)	열람좌석당 재학생(학부+대학원)수 개가식 열람석의 비율
		3. 국내외 정기간행 학술지의 구독(4)	학과당 평균 정기간행 학술지 구독 종수
		6. 정보처리 체제의 구축 및 운영(4)	전산체계 및 LAN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교육 및 행정을 위한 활용 정도 도서관 전산화 정도
6. 재정 경영영역 (100)	6.2 예산편성 및 운영 (26)	4. 도서구입비의 규모(4)	최근 3년간 재학생 1인당 도서구입비

〈표 3〉 대학도서관 현황

구 分		현 황		학생(학과)근거 지표
재 학 생 수				
학 과 수				
도 서 관 수				
도 서 관 직 원 수				
열 램 좌 석 수	개가식	구 성 비		
	폐가식			
	계		100%	
장 서 수	동양서			
	서양서			
	계			
정기간행 학술지 구독종수	국 내			
	국 외			
	계			
비 도 서 자료 수	마이크로 필 름			
	마이크로 피 쇠			
	CD			
	계			

〈표 4〉 최근 3년간 재학생 1인당 도서구입비

학년도	도서구입비	재학생수	재학생 1인당 도서구입비
계			

〈표 4〉에서 재학생수는 학부와 대학원 재학생 수를 합하여 산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대교협에서는 대학종합평가인정제의 평가척도를 작성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삼기

위해 1995년 4월에 전국의 대학에 대학교육여전조사를 배포하였다. 여기에 포함된 대학도서관 관련 항목은 대학설치기준령에 의거한 법정 면적 및 현황, 직원수(일반직원, 전문직

원), 보유 학술잡지수를 포함한 장서수(동양서, 서양서), 정기간행 학술지 구독종수(국내, 국외), 비도서자료(마이크로필름, 마이크로피쉬, CD), 도서관전산화(도서검색, 대출 및 관련업무 전산화의 유무 표시), 예산액 등이다. 기존의 평가항목 구성과 비교해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아 현재 진행되는 평가척도에 관한 연구에서 도서관 관계 평가항목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

3.2 문제점의 인지

대교협은 대학평가인정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이미 광범위한 연구를 수행해 왔으며 그런 노력을 현재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평가기준과 방법의 타당성과 전문성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평가대상 영역에 따라 평가기준과 방법을 합리적으로 설정하지 못하면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잃어버려 평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대학종합평가인정제에 있어서 대학도서관평가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점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점은 평가인정제 전체의 틀 속에서 대학도서관의 비중이 너무나 낮게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총 121개 평가항목 중 도서관 평가에 관련된 것은 5개 항목이며 여기에 부여된 가중치는 전체의 약 4% 정도에 불과하다.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투자의 우선순위를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설정하

는 실정임을 고려할 때 이것은 오히려 대학도서관의 상대적 퇴보를 가져올 수도 있는 문제이다. 1990년 이후 대학설치기준에 대한 법적 규제를 완화한 대신 대학의 자체평가를 권장하는 일본에서는 평가항목과 방법은 각 대학의 자율적 결정에 맡기되 자체평가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보장하기 위한 지침을 제시하였다.(大學基準協會臨時理事會) 1991년에 승인된 이 지침에서는 대학의 이념과 목적, 교육과정, 교원의 조직 및 교육연구활동, 시설과 설비, 재정 등과 함께 ‘대학의 교육연구활동을 실질적으로 유지시켜 주는’ 도서관을 하나의 독립된 평가항목으로 들고 있다. 영국에서는 1987년부터 매년 발행하는 University management statics and performance indicators in the UK를 통해 Committee of Vice-Chancellors and Principals와 University Grants Committee가 공동 개발한 39개의 대학평가지표를 사용한 통계를 발표하는데 그 중 18%에 해당하는 7개 지표가 대학도서관에 관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Olausson:68)

둘째는 제시된 평가항목과 주요지표가 너무 단편적이라 점이다. 마치 대학도서관이 책을 수집하는 보관소나 단순히 빌려주는 대본소 또는 학생들의 독서실 기능만 하면 되는 것처럼 보인다. 도서관이 ‘창고시대’에서 ‘봉사시대’를 거쳐 ‘교육기능의 시대’로 발전해 왔고 발전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Lancour) 대학종합평가인정제에 나타난 우리나라의 대학도서관은 아직도 발전의 첫단계에 머물러 있는 셈이 된다. 대학이 질높은 교육과 연구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대학도서관의 정보

봉사기능과 교육기능의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평가 지표, 예컨데 참고정보봉사의 효율성, 도서관이용교육의 실시 또는 전문직 사서의 확보 정도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는 투입 일변도의 평가라는 점이다. 평가에 사용되는 지표는 일반적으로 투입지표 (input indicators), 과정지표 (process indicators) 산출지표 (output indicators)로 나눈다. 대학평가에서 투입지표는 대학이 보유한 인적자원과 물적자원 예를 들면 교수수나 시설, 재정규모로 표현된다. 과정지표는 수업의 질, 재정 운영의 효율성 등 대학에 의한 자원의 이용과 활동에 관한 것이다. 산출지표란 졸업생의 취업율, 교수의 연구실적 등 자원이용과 활동에 의해 달성된 출력을 말한다. <표 2>를 보면 과정지표인 '정보처리 체제의 구축 및 운영 (도서관 전산화 정도)' 외에는 모두 투입지표이며 산출지표는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우리보다 오랜 대학평가 경험을 갖고 있는 미국에서도 지역평가인정기관들이 목표지향적인 평가를 강조하면서도 기준상에서는 도서관의 산출지표를 거의 강조하지 않는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 즉 7개 지역평가인정기관의 대학도서관 평가기준들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인지된 10개 평가부문, 57개 평가항목들은 주로 투입과 과정지향적 지표들이고 평가항목 중 9%만이 약간의 산출지향성을 나타내었다. (Kania)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장서량, 직원수같은 투입지표들이 가시적이며 쉽게 수량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산출에 대한 질적 측정치가 결국 성과의 성취도를 예측할 수 있는 척도가 되듯이 투입에 대한 측정치를

산출에 대한 우수한 예측자로 간주할 수 있다.(Lancaster:18) 그렇더라도 투입지표가 도서관의 성과를 평가하는 절대적인 가능자는 될 수 없으므로 산출지표를 고려하지 않은 평가기준은 왜곡된 평가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넷째는 도서관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는 데 소홀하다는 점이다. 현행 평가기준에서는 '확보된 도서의 질' 만이 유일하게 장서의 질적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제시되어 있을 뿐이다. 그나마도 '도서의 질'을 어떤 방법과 척도를 사용해서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지침이 주어져 있지 않아 그 지표의 실제 적용 가능성이 의심스럽다. 도서관 봉사의 질적 수준을 무시한 채 기계적으로 계량화 할 수 있는 잣대만으로 평가하려 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은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초창기 역사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쉽게 예측 할 수 있다. 실제로 요즈음 종합평가를 앞둔 일부 대학도서관에서 장서의 질은 고려하지 않은 채 단기간 내에 장서수를 늘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우려의 소리가 들리기도 한다.

다섯째 문제점은 평가를 위해 측정해야 할 통계의 단위에 있다. 예컨데, 재학생수를 학부 학생과 대학원생의 단순 합으로 측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타당하지 않다. 도서관에 대한 정보요구는 교수와 학생, 그리고 학생의 경우 이용자가 등록하고 있는 학위과정의 수준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무시한 것이기 때문이다.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의 대학원생수, 교수수에는 각각 일정한 가중치를 부여해야 한다. 또 <표 2>, <표 3>, <표 4>에 각각 표시된 도서수, 장서수, 비도서자료수, 도서구입비 등의 개념이

모호하다. 도서 또는 장서가 단행본만을 뜻한다면 정보전달매체의 다양화 추세를 고려하지 않은 시대착오적인 평가 항목이 되며, 단행본은 물론이고 마이크로물, 시청각자료, CD-ROM 등을 포함한다면 그 수를 세는 단위가 문제가 된다. 1986년에 개정된 미국 대학도서관 기준에서는 마이크로물에 대해서는 책상당수(volume equivalents), 시청각자료에 대해서는 서지적 단위 상당수(bibliographic unit equivalents)로 환산하도록 규정하였다.(Association of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College Library Standards Committee) 특히 도서관통계와 성과측정에 관한 국제표준화 작업이 ISO TC46 SC8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한 계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4. 대학도서관 평가의 새로운 방향

4.1 대학도서관 평가의 최근 경향

일반적으로 조직체가 그 활동을 평가하는 목적은 활동의 결과를 조직체가 설정한 목표와 외부환경의 요구에 비추어 봄으로써 활동 내용의 개선과 활성화에 연계시키고 조직체를 둘러싼 외부환경과의 적절한 조화를 꾀하는 것이다. 즉 평가는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평가의 결과에 입각하여 발전된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일련의 경영과정에 속하며, 조직체는 그런 과정을 통해 조직체에 대한 외부환경의 변화하는 요구에 융통성있게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조직체의 운영에 대한 이러한 시스템적 접근 방법에서는 어떤 시스템이 일정한 기간에 그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는가를 체계적으로 측정하는 것 즉 성과측정(performance measurement)이 중요하다.

도서관에서의 성과측정이란 도서관이 목표를 달성하고 그 시스템(즉 도서관) 이용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능력을 수량적으로 나타낸 것이다.(McClure) 도서관에서 성과란 무엇을 뜻하는가에 대한 논의는 연구자와 시대에 따라 다양하고(Hannabuss) 따라서 그것을 측정하는 방법, 척도나 지표도 여러가지가 개발되었다. 구미에서 도서관에 대한 성과측정 연구가 본격화된 것은 1970년대 이후이다. 처음에는 공공도서관계에서부터 논의되기 시작했으나 1980년대 이후 대학도서관계에서도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졌다.(Goodall) 그 결과 일련의 대학도서관용 성과측정편람이 출판되었으며 (Kantor)(Cronin)(Van House, Weil and McClure) 1989년에 개정된 미국의 대학교도서관기준도 성과평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Association of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University Library Standards Review Committee)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성과측정 연구의 결과가 곧바로 각 평가인정기구의 대학평가에 활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학의 재정압박과 기술변화로 인해 대학도서관을 평가하는 새로운 평가기준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고 이것은 평가인정기관들이 목표지향적인 평가에 점점 더 많은 비중을 두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경향은 1993년에 미국도서

관협회가 발행한 대학도서관 사서용 인정평가 편람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Sacks and Whildin)

4.2 대학도서관 평가에 대한 제언

여기서는 도서관평가의 최근 경향을 염두에 두고 현행 대학평가인정제 중 도서관평가와 관련하여 인지한 문제점들을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려고 한다.

우선 대학도서관 평가의 틀이 확립되어야 한다. 대학 본연의 기능인 교육과 연구의 수준을 좌우하는 절대적인 요소가 대학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적절성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도서관은 대학평가기준에서 최소한 하나의 독립된 평가부문으로 자리매김되어야 하고 가치의 비율도 지금보다 훨씬 높아져야 한다.

다음에는 평가내용이 개선되어야 한다. 대학도서관의 성능을 올바르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평가항목을 다양하게 하고 성과척도를 도입하며,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도서관 봉사의 질을 객관적으로 측정 평가할 수 있는 방법과 척도를 사용해야 한다.

<표 5>는 이런 맥락에서 대학종합평가인정제 가운데 도서관 관계 평가를 위한 평가부문과 항목 그리고 지표들의 시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 시안에는 투입지표와 과정지표는 물론 산출지표를 모두 포함시켰다. 그리고 개별 도서관의 자체평가와 여러 다른 도서관들의 비교평가에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그런데 만일 이러한 제언이 받아들여진다면 우리나라의 대학도서관들이 평가지표에 따른

자체평가를 실시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생긴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도서관들이 실시하고 있는 봉사의 수준과 확보하고 있는 각종 통계자료의 종류 그리고 도서관 평가 경험의 한계 등을 고려할 때, 문현정보학의 이론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된 일부 평가지표들을 즉시 적용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따를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그 적용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것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한편 도서관전문가들은 평가의 계획단계부터 완료시까지 매 단계마다 참여를 보장받아야 한다. 즉 평가기준의 설정은 물론이고 각 대학에서 구성하는 자체평가연구위원회의 일원으로서 자체평가에 참여하고, 대교협에서 구성하는 종합평가위원회의 일원으로서 평가대상대학에 대한 서면평가와 방문평가에 참여해야 한다.

5. 결 론

지금까지 한국의 대학도서관들은 자체평가는 외부평가는 평가와 관련해서 그리 많은 경험을 갖지 못했다고 본다. 그 원인은 대학도서관의 역할에 대한 대학사회 전반의 몫이 이해와 그에 따른 대학도서관들의 모호한 목표 설정, 도서관봉사 자체의 특성상 평가를 설계하고 실시하기가 쉽지 않은 점, 도서관평가에 대해 문현정보학계의 연구가 체계적으로 축적되지 못한 점, 대학도서관인들이 가진 평가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 그리고 모체기관인 대학 스스로가 경쟁의 사각지대에 안주하면서 평가대상

〈표 5〉 대학도서관 평가를 위한 시안

평가영역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지표
	자료 확보		이용자(교수와 학생의 등록학위과정별 가중치 부여) 1인당 장서수(비도서자료를 포함하며 각 자료의 형태별 단위변환기준에 따라 계산) 이용자 1인당 증가 장서수 전공영역당 학술지 구독 종수 도서관총예산에 대한 자료비의 비율 학생 1인당 자료비 구입추천을 한 교수의 비율 교과과정과의 연계성(강의계획서에 제시된 자료의 소장 비율) 선택정책 및 폐기정책의 합리성
	자료 이용		이용밀도(이용자 1인당 이용자료수) 장서회전율(총장서수에 대한 이용자료수의 비율) 입수 가능성(탐색한 자료수에 대한 입수자료수의 비율을 표본조사로 측정) 적시성(탐색한 자료를 입수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
도서관	열람봉사		개관시간 총봉사대상자수에 대한 실제 이용자수의 비율 열람좌석당 이용자수 이용자 1인당 개가열람자료수
	참고봉사		참고집서의 적절성 이용자 1인당 접수된 질문수 접수된 질문 중 정확하게 응답된 비율 응답과 봉사에 대한 이용자의 만족도
	정보봉사		이용자 1인당 정보검색 횟수 검색실패율 검색된 문헌의 관련성 검색소요시간 데이터베이스의 최신성
	온라인 정보검색		
	직원		전문직 사서 1인당 봉사대상자수 직원 1인당 봉사대상자수 이용자가 전문직 직원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

평가영역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지표
도서관	정보봉사	상호대차	총 봉사대상자수에 대한 실제 이용자수의 비율 이용자 1인당 상호대차를 통해 입수한 자료수 적시성(대차신청자료를 입수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 상호대차를 통한 입수자료수에 대한 대출자료수의 비율
			개설된 도서관이용교육프로그램의 적절성 도서관이용교육을 받은 이용자의 비율 도서관이용교육을 받은 이용자의 만족도
	시설설비	공간계획	사무용 및 열람용(학부생, 대학원생) 면적의 적절성 서고수용능력(서가의 총길이)(서가점유율)
			이용자동선과 직원동선의 적절성
		건물	적정환경의 유지(조명, 냉난방, 방음 등) 방재대책
	기기		복사기의 이용상황과 유지관리상태 컴퓨터단말기의 이용상황과 유지관리상태
			시청각자료기기(마이크로물독서기와 프린터, 필름영사기, VCR 등)의 이용상황과 유지관리상태
	경영	도서관 계획	도서관장이 대학의 장단기계획수립에 참여하는 정도 도서관계획수립과정의 적절성 도서관계획의 실현 가능성
		예산	예산편성과정의 합리성 대학총예산에 대한 도서관예산의 비율
		조직	도서관장의 역할수행의 적절성 도서관조직의 적절성 규칙, 규정류의 정비상태 각종 위원회의 활동상황
		인사관리	1급정사서, 2급정사서, 준사서, 비전문직원 비율의 적절성 전문직직원의 재교육프로그램

에서 제외되어 온 점을 들 수 있다. 어쨌든 현 행 대학종합평가인정제의 평가기준에 반영된 대학도서관의 위상 -- 정보시대, 국제화 시대에 대비한 대학평가 속에 자리잡은 알렉산드리아도서관적 모습 --은 그런 경험부족의 반

영이라고 생각한다.

LAN이나 Internet, 전자도서관이라는 말로 대변되는 21세기 대학도서관의 발전모형은 우리들에게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평가기준의 설정을 요구할 것이다. 보다 고도화된 정보

서비스의 실현을 위한 대학도서관 평가기법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지만 가장 시급한 것은 대학평가인정기준 가운데 도서관관련 기준들을 20세기말의 시대 상황에 걸맞도록 만드는 일이다.

본 연구는 그런 의도에서 현행의 도서관관련 평가항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한 개인의 능력만으로 완전한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닐 것이다. 국립 및 사립대학도서관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대학도서관계와 문헌정보학계가 협력하여 우리나라 대학도서관들의 실질적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대학교육협의회가 그 제안을 채택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인용문헌

國立大學圖書館協議會 自己評價基準檢討委員會, “國立大學圖書館における自己點検評價について:よりよき実施に向けての提言,” 「大學圖書館研究」 42(1993, 9): 77-92.

김정현, “대학종합평가기준 항목중 도서관관련 항목에 대하여,” 「圖書館文化」 36(3)(1995, 5-6): 26-32.

김진수, “대학종합평가인정제의 실제와 도서관평가문제,” 「圖書館文化」 36(3)(1995, 5-6): 21-25.

大學基準協會臨時理事會, 「大學の自己點検評價の手引き」 (東京: 同協會, 平成4(1992))

배향기, “대학도서관 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圖書館文化」 36(3)(1995, 5-6): 33-47.

系賀雅兒, “圖書館における統計と評價,” 「現代の圖書館」 31(1)(1993, 3): 3-10.

_____, “圖書館活動の評價に關わる標準化,” 「情報の科學と技術」 42(5)(1992): 441-448.

上田修一, “大學圖書館のパフォーマンス尺度,” 「大學圖書館研究」 38(1991, 10): 1-7.

岸田和明, “利用統計を用いた藏書評價の手法,” 「情報の科學と技術」 44(6)(1994): 300-305.

李和國, “大學評價認定制 定着의 방향과 과제,” 「大學教育」 64(1993, 7-8): 67-73.

逸村 裕, “大學圖書館の評價と今後,” 「現代の圖書館」 31(2)(1993, 6): 103-111.

_____, “計量的データによる圖書館評價,” 「情報の科學と技術」 44(6)(1994): 306-311.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994년도 대학 종합평가 인정제 시행을 위한 대학 종합평가 편람」 (서울: 동협의회, 1994)

黃禎奎, “大學評價認定을 위한 基準 設定,” 「大學評價認定制 實施를 위한 基本推進方向」 (서울: 韓國大學教育協議會, 1989): 70-81.

Abbott, Christine, “What does good look like? the adoption of performance indicators at Aston University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 British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5(2)(1990): 79-94.
- Anderson, William, "The Evolution of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for special groups: the role of performance review and the user," IFLA Journal, 17(2)(1991): 135-141.
- Association of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College Library Standards Committee, "Standards for college libraries," College & Research Libraries News, 47(3)(March 1986) 우리말 역본은: "美國大學圖書館을 위한基準, 1986," 李炳穆 역, 「國會圖書館報」 27(5)(1990, 9-10): 70-87.
- Association of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University Library Standards Review Committee, "Standards for university libraries: evaluation of performance," College & Research Libraries News, 50(8)(Sept. 1989): 679-691. 우리말 역본은: "美國大學校圖書館을 위한基準," 李炳穆 역, 「國會圖書館報」 29(5)(1992, 9-10): 59-80.
- Casserly, Mary F., "Academic library regional accreditation," College & Research Libraries, 47(1)(Jan. 1986): 38-47.
- Chacha, Rosemary N. and Irving, Ann, "An experiment in academic library performance measurement," British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6(1)(1991): 13-26.
- Cronin, Mary J., Performance measurement for public services in academic and research libraries. (Washington, D.C.: 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 1985)
- Du Mont, Rosemary Ruhig, "A conceptual basis for library effectiveness," College & Research Libraries, 41(2)(March 1980): 103-111.
- Ford, Geoffrey, "Approaches to performance measurement: some observations on principles and practice," British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4(2)(1989): 74-87.
- Goodall, D.L., "Performance measurement: a historical perspective," Journal of Librarianship, 20(2)(1988): 129-144.
- Hannabuss, S. "The concept of performance: a semantic review," Aslib Proceedings, 39(1987): 149-158.
- Harris, Melanie, "The user survey in performance measurement," British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6(1)(1991): 1-12.
- Kania, Antoinette M., "Academic library standards and performance measures," College & Research Libraries, 49(1)(Jan. 1988): 16-23.

- Kantor, Paul B., Objective performance measures for academic and Research Libraries. (Washington, D.C.: 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 1984)
- Lancaster, F.W., If you want to evaluate your library... London: Library Association, 1988. 우리말 역본은 「도서관서비스평가론」 장혜란 역. (서울: 구미무역 출판부, 1990)
- Lancour, Harold, "Training for librarianship in North America," Library Association Record, 18(1951): 280-284.
- Leach, Ronald G., "Academic library change: the role of regional accreditation,"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18(5)(Nov. 1992): 288-291.
- Line, Liz, "Performance measurement in academic libraries: a university perspective," British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4(2)(1989): 111-120.
- Lutzker, Marilyn, "Bibliographic instruction and accreditation in higher education," College & Research Libraries News, 51(1)(Jan. 1990): 14-18.
- McClure, C.R., "Management information for library decision making," Advances in librarianship, 13(1984): 2-47.
- McElroy, A. Rennie, "Standards and guidelines in performance measurements," British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4(2)(1989): 88-98.
- Olausson, Carin, "Evaluation in university libraries: a tool for development?" Libri, 42(1)(Jan.- March 1992): 63-74.
- Sacks, Patricia Ann, Whildin, Sara Lou, Preparing for accreditation: a handbook for academic librarians.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93)
- Shaughnessy, Thomas W., "Assessing library effectiveness," Journal of Library Administration, 12(1)(1990): 1-8.
- Thompson, James, Redirection in academic library management. (London: Library Association Publishing, 1991)
- Van House, Nancy A., "Output measures in libraries," Library Trends, 38(2)(Fall 1989): 268-279.
- Van House, Nancy A., Weil, Beth T., McClure, Charles R., Measuring academic library performance: a practical approach.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90)
- Vokac, Libena, "IFLA Section on Statistics 1983 to 1988," IFLA Journal,

- 16(3)(Aug. 1990): 343-356.
- Whitehall, Tom, "Quality in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 a review," *Library Management*, 13(5)(1992): 23-35.
- Wolff, Ralph A., "Rethinking the librarian's role on accrediting teams," *College & Research Libraries News*, 53(7)(July-Aug. 1992): 450-451.